

# ❁ 한국여성재단 창립 5주년 기념식 및 후원행사 식순 ❁

## 1부 6:30

사회 진양혜(아나운서, 재단 홍보대사)

오프닝공연..... 서혜경(피아니스트, 재단 홍보대사)  
 1부 개회..... 사회자  
 축사..... 지은희 여성부 장관  
 재단활동 보고 및 비전선포..... 박영숙 본 재단이사장  
 감사패 및 기금전달식..... 윤후정 본 재단이사  
 2005년 파트너기관 지원증서 전달식..... 조홍식 본 재단 배분위원장  
 홍보대사 위촉식  
 미래비전 선포 및 발족식  
 축하떡자르기  
 건배제의

## 2부 7:30

사회 최광기(방송인)

만찬  
 축하 이벤트(경매 및 화수분 이벤트)  
 축하 공연..... 축하 / 이소정(뮤지컬 배우, 재단 홍보대사)  
 폐회

본 행사는 유한킴벌리에서 후원해주셨습니다.

 한국여성재단  
 KOREA FOUNDATION FOR WOMEN

포디움

사회자

1

설호정, 김애령  
이은희, 이상덕  
조형, 조한혜정  
김민규, 권오득  
박종식, 심영희  
김태호, 박원순

2

김부겸, 손봉숙  
송영선, 이경숙  
이승희, 이영순  
최순영, 윤원호  
김경오, 박윤정  
김길자, 진수희

3

박영숙, 강원룡  
김옥라, 지은희  
윤후정, 서혜경  
이소정, ~~김상배~~  
오재식, 조흥식  
장상

4

이은옥, 장흥순  
오세훈, 안철수  
이보영, 조동업  
송현옥, 감지원  
문국현, 박주현

5

송기정, 김혜숙  
신익균, 정창환  
조일엽, 정의규  
김을주, 박인혜  
박영희, 한영  
진양혜, 최광기

6

최선희, 윤미향  
이미경, 이정이  
박옥순, 이윤희  
박두준, 김수자  
김효은, 박영선  
손영주, ~~안성~~

7

임정희, 이규동  
권순옥, 이경순  
김혜정, 김영애  
김경희, 서혜경  
~~박한표~~, 문효은  
한영애

8

이혜경, 노금숙  
이현숙, 신혜수  
정한백, 김상희  
이요식, 정감자  
신숙희, 서미영  
남윤인순, 한미영

9

이혜경, 조현옥  
이상영, 윤순녀  
김숙임, 변도윤  
이옥정, 김효선  
이명호, 박옥희  
윤정숙

10

최재천, 김형태  
차병직, 박승진  
변영선, 이태수  
한영섭, 유현숙  
최형욱, 안중길  
김성애

11

이소정편 5명  
서혜경편 5명  
허효길

12

최희영순, 나영숙  
조덕이, 이문숙  
한채운, 정유석  
이미영, 배진경  
조도자, 감미경  
이경옥

13

전진숙, 정숙자  
권순영, 최윤정  
서문하, 주정순  
박해숙, 권남이  
강혜정, 김은식  
조중신, 조지혜

14

허정도, 김승구  
이상엽, 김종욱  
제훈호, 강대선  
윤경태, 장원석  
고경표, ~~박성훈~~  
서정수, 조영숙

15

임경화, 정경숙  
구은경, 김인선  
양해경, 홍경미  
박진완, 이영경  
김미연, 신은희  
도영선

16

한동우, 박영주  
한박정인, 이재우  
전양숙, 채 은  
박민나, 왕인순  
이주환, 최인석  
최원석

17

17인  
기자석

18

방대옥, 김경순  
고경진, 박상희  
이주성, 김영석  
조혜련, 유지연  
김도연, 김형준  
전현경, 이경현

19

이찬후, 박혜영  
고경일+5  
지혜  
김설화  
~~박대범~~, 박혜숙  
조경미, 마선미  
유인철

20

유경민, 이선화  
배선희, 김영옥  
기남형, 이건  
한경희, 김한수  
유한1,2, 팽주형

PRE

행사대기 및 참가자 접수

안내멘트: 잠시 후 6시 30분부터 한국여성재단 창립5주년 기념 행사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참가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부> 사회: 진양혜

OPENING (18:30~18:48)

사회: 흔히 강물을 세월에 비교하곤 합니다.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또 굽이굽이 산과 들, 그리고 계절을 흘러서 바다가 되어가는 모습이 마치 인생살이의 희로애락을 닮았기 때문일 텐데요, 그럼 5년이라는 시간은 강물로 치면 얼마나 되는 길이 일까요.

비록 큰 바다는 아니라 해도,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내를 이루고, 그 내가 또 모여서 강물로 흘러서, 때론 여름들판의 가뭄에 농부들의 가슴을 적시고, 때론 홍수를 만나 거칠게 흐르겠지만, 그래도 잔잔

하게 말없이 흘러서 곧 이루게 될 저 끝없는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중도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흘러온 한국여성재단의 5년이라는 강물의 흐르는 소리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서혜경씨가 연주해드립니다. 서혜경씨 나와 주시지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첫 곡은 쇼팽의 하프, 두 번째 곡은 슈만의 현정입니다.

(피아노연주 2곡 마침)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앵콜~)

그러면 잠시 서혜경 선생님 소감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서혜경씨 말씀)

네 감사합니다. 서혜경선생님... 앙코르 곡도 받아 주실 거죠?

(서혜경씨 웃으며 수락)

네... 감사합니다. 앙코르 곡은 리스트의 헝가리광시곡6번입니다.

(서혜경씨 피아노연주)

사회: 피아니스트 서혜경씨의 축하연주였습니다. 오늘 서혜경씨의 축하공연은 재능나눔으로 기부해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혜경씨께서는 현재 한국여성재단의 홍보대사로서 여성재단을 통해 공연수익 1%나눔과 국내외 공연시 공연팸플릿한면을 꼭 할애하셔서 여성재단을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개회선언(18:48~18:51)

사회: 지금부터 한국여성재단 5주년창립기념식 및 후원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부 사회를 맡은 한국여성재단 홍보대사 진양혜입니다. (인사)

‘딸들에게 희망을!’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한국여성재단이 출범한지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나눔을 희망의 기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을 위한 시민사회공익재단으로 출범한 이후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 무대 뒤의 백드롭을 보아 주십시오. 지난 5년 동안 여성재단에 기부해 주신 2만3천 기부자와 기업이 모두 썩어 있습니다. 오늘의 여성재단이 있기까지 여성재단을 사랑해 주시고, 여성을 위해 크고 작은 기여를 해주신, 숨은 공로자들이십니다. 저 분들에게 오늘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한국여성재단 창립5주년기념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사(18:51~18:54)

사회: 창립5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이니만큼 많은 분

들이 축하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권양숙 영부인께서는 외국순방 일정으로 피치못하게 참석을 못하고 대신 청와대 제2부속실의 이은희 국장님을 통해 금일봉을 전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를 해주시는 분들 중에 특별한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여성들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고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지은희 여성부장관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주시지요...

(축사)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자리를 축복해주시기 위하여 좋은 말씀 준비해주신 지은희 여성부장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말씀은 힘이 넘치고, 우리 여성들에게 필요한 말씀만 꼭꼭 집어 주셔서 얼마나 후련하고,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사이) 딸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한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소중하며 중요한 일인지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단활동보고및비전선포(18:54~19:06)

사회: 이제 한국여성재단이 걸어온 그 뜻 깊은 시간들을 되짚어 보고, 여성재단이 나아갈 그 희망찬 미래에 대한 포부를 한국여성재단 박영숙이사장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와주십시오.

(암전-재단 영상물상영)

(이사장님 말씀-내외빈 소개, 비전선포)

(엄숙하고, 힘찬 목소리)

‘제도약!2010, 딸들에게 미래를!’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사각지대 소외여성복지지원사업강화’ ‘여성인재육성’, ‘글로벌여성리더십함양’을 통해 ‘제도약!2010, 딸들에게 미래를!’이란 미래비전을 여러분 앞에서 엄숙히 선포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의 거듭난 행보에 여러분 모두 축하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의 재도약을 위해 힘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박수) 박영숙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 감사패 및 기금전달식(19:06~19:16)

사회: 지금부터 지난 2004년 여성재단의 발전과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를 해주신 기업에 감사패를 전달하겠습니다.

유한킴벌리 커뮤니케이션부 김혜숙부장님, 교보생명 송기정 상무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수상에는 한국여성재단 윤후정 이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 감사패문구

감사패.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 문국현. 귀 사는 (가칭)미래포럼을 제안하여 본 재단의 기금조성 및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2002년부터 본 재단의 창립기념식 행사를 지원하였기에 감사의 뜻으로 이패를 드립니다. 2004년 12월 6일 재단법인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영숙 대독

(박수-사진)

감사패.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 신창재. 귀 사는 본 재단과 함께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행사 및 여성공익활동가들의 재충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본 재단의 기금조성 및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였기에 감사의 뜻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2004년 12월 6일 재단법인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영숙 대독

(박수-사진)

윤후정 이사님과 두 분 함께 기념사진을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장)

이제 기업공동캠페인 기금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주)참존의 조일엽 고문님, 가천길재단의 신익균 병원장님, 애경산업(주)정창환이사님 나와 주십시오.

(기금전달식)

가천길재단에서는 새생명세희망 의료계공동캠페인을 통해 995만원을 기금전달해 주십니다. 네- 감사히 받겠습니다. 신익균 병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수-사진)

애경산업주식회사정창환이사님 이십니다. 애경산업 주식회사에서는 퍼펙트와 포인트 등 1년 연중 꾸준히 여성재단과 기업공동캠페인을 벌여 기금을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이번 창립5주년을 축하해 주는 의미로 2백만 원을 별도로 전달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사진)

(주식회사)참존은 배해 1천만 원 이상의 기금전달을 해 주고 계십니다. 늘 감사한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여성을 위해 소중히 쓰겠습니다. 조일엽 고문님 감

사합니다.

(박수-사진)

기금전달식을 해주신 기업 모두 함께 사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년의 저 자리는 모든 기업이 함께하셔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인세1%나눔약정식(19:16~19:19)

사회: 여성재단에는 많은 1%나눔이 있습니다. 월급 1%, 매출1%, 영화수익1%, 유산1%나눔 등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용돈, 기념일, 공연수익, 축의금, 재능, 티켓, 조의금, 자원 봉사인 고양이손나눔 등이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도 재능나눔을 해 주신 분들의 정성으로 채워졌는데요, 무대 뒤 백드롭의 그림은 극동대 이찬후 교수께서 기부해주셨습니다. 어디계시죠?

(화면)

감사합니다. 오늘 보시게 될 여성재단 홍보 플래시 애니메이션은 김포대 박혜영 교수님께서 기부해주셨습니다.

(화면)

감사합니다. 입장하시면서 전시된 캐리커처를 보셨을 겁니다. 상명대 고경일 교수님과 학생들이 기부해주셨습니다.

(화면)

아까 여성재단 5년을 돌아본 영상물 중 여성 오피니언 리더들의 사진이 나오는데요, KTF여자사랑 캠페인 당시 찍었던 사진으로 오늘 이 자리에는 함께 해주실지 못했지만, 조세현 사진작가께서 기부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인세1%나눔 약정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박민나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민나 선생님은 얼마 전에 '가시철망 위의 넝쿨 장미'란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책 전달) 박민나 선생님 약정서에 서명해 주시고요... 박영숙 이사장님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박수)

박영숙 이사장님, 책 좀 보여 주시지요. 박민나 선생님 감사합니다. (퇴장) 우리는 이제부터 박민나 선생님의 '가시철망 위의 넝쿨 장미'란 책이 많이 팔리기를 기원해야겠네요.

## 2005년 한국여성기금 지원사업 지원약정서 전달식 (19:19~19:24)

사회: 다음으로, 여성재단 창립기념 행사의 꽃입니다. 2005년 한국여성기금 지원사업 지원약정서 전달식을 갖겠습니다. 지원약정서 전달식은 한국여성재단 배분위원장이이시며 이사이신, 조홍식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광주지역 네트워크한영 회장님, 장애여성공감 박영희 대표님,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박인에 대표님, 나와 주세요.

2005년 지원사업은 정기신청공모사업으로 34개 사업 새날기금공모사업으로 5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약 4억3천만 원이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대표로

3개 단체에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성평등사회조성분야부터 하겠습니다.

(지원약정서 문구)

2005년 한국여성기금 지원사업 사업비 지원증서. 파트너기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 광주YWCA

한국여성재단은 2005년 본 재단의 파트너로서 귀 단체가 실시하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 분야 '새 정치의 희망, 여성이 일군다'에 위와 같이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재단법인)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영숙, 배분위원장 조홍식

(전달)

감사합니다. 예쁜 현판도 함께 드립니다. 한영회장님... 현판 좀 보여 주세요.  
기념사진 부탁드립니다.

(박수-사진)

다음은 여성복지사업분야입니다. 장애여성공감의 박영희 대표님이십니다.

2005 한국여성기금 지원사업 사업비 지원증서. 파트너기관: 장애여성공감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현판도 받아 주시고요.  
사진 부탁 드려요.

다음은 새날기금 지원사업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박인에 대표님이십니다.  
2005년 새날기금 지원사업 사업비 지원증서... 이하 동문입니다. 현판도 받아 주시고요. 사진도 찍으시고요.

지원증서 받으신 세 분과 조홍식 위원장님 모두 사진을 찍겠습니다. 활짝 웃어주세요. 여러분 격려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내년에도 우리 여성들을 위해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홍보대사 위촉식(19:24~19:27)

**사회:** 여성재단의 얼굴이 새로 탄생했습니다. 저도 2003년 5월에 한국여성재단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지금까지 늘 자부심을 갖고 활동해 오고 있는데요, 반가운 얼굴이 홍보대사를 수락하셨네요. **이소정**씨 앞으로 나와 주세요. 한국여성재단 홍보대사 위촉장 수여식을 갖겠습니다.

**1안:**홍보대사 경우) 이번 홍보대사 위촉장 수여식은 선배 홍보대사인 **김보성**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회가 새로울 텐데요. 격려의 한 말씀 부탁 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지연되어 딱 1분만 부탁드립니다.

(김보성 격려말)

감사합니다. 위촉장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촉장 문구)

위촉장

성명: 뮤지컬 배우 이소정

한국여성재단은 귀하를 본 재단의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귀하의 관심과 참여는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소외계층 여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귀하의 따뜻한 마음은 딸들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2월 6일 한국여성재단 박영숙 이사장 대독

사진 포즈 부탁드립니다.

김보성 홍보대사님 감사합니다. 새로 홍보대사로 위촉되신 이소정씨의 감회를 들어 보겠습니다.

**2안:**이사장님 경우) (이사장님 퇴장 안하고) 박영숙 이사장님께서 계속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영숙 이사장님께서 지난 10월 문화나눔행사에서 본트랩칠드런과 함께 '사운드 오브 뮤직'의 마리아역으로 출연한 이소정씨를 보시고, 팬이 되셨다고 합니다.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촉장 문구)

## 위촉장

성명: 뮤지컬 배우 이소정

한국여성재단은 귀하를 본 재단의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귀하의 관심과 참여는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소외계층 여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귀하의 따뜻한 마음은 딸들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2월 6일 한국여성재단 박영숙 이사장

사진 포즈 부탁드립니다.

박영숙 이사장님 너무 좋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 홍보대사로 위촉되신 이소정씨의 감회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소정 감회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소정씨께 큰 박수로 앞으로 많은 활동 부탁 드려보겠습니다.

미래포럼 발족식(19:27~19:37)

사회: 이제부터는 조금은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미래포럼 리플렛을 참조해 주십시오. 여성과 기업인, 그리고 사회각층 리더가 미래세대를 위해 모이셨습니다. 건강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미래사회 건설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미래포럼을 준비해왔습니다. 우리의 후손을 위해 미래를 열어 가는데 큰 몫을 담당할 미래포럼 발족식을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미래포럼 임시의장이신 장홍순터보테크대표이사님을 모시고 인사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장홍순 대표이사 인사말씀)

네- 장홍순 임시의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포럼 발기인 중의 한분이신 이보영 원장님을 모시고 미래포럼 발족선언 순서를 갖겠습니다. 이보영 원장님...

(발족선언문 낭독)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발족을 축하해 주십시오.

다음은 미래포럼의 심볼과 로고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홍순 임시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심볼을 직접 제작해 기부해 주신 한세대초동업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조동업 교수님께 심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조동업 교수 심볼 설명)

자, 조동업 교수님의 심볼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심볼의 의미처럼 좋은 활동을 많이 할 것을 요청 드리는 의미에서 조동업 교수님께서 장홍순 임시의장님께 심볼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장홍순 의장님 받아 주시지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미래포럼 발기인으로 오늘 발족식에 참

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간단한 목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변호사), 김순진((주)놀부 대표),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주현(변호사), 안철수(안철수연구소 대표이사 사장), 오세훈(변호사), 이보영(이보영아카데미 원장), 장홍순(터보테크 대표이사) <당일, 참석자 확인 후 반드시 명단 체크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실 분들께 격려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좋은 일 많이 해주십시오.

이것으로써 미래포럼 발대식을 마치겠습니다.

생일떡커팅및건배제의(19:37~19:47)

(생일떡 등장)

사회: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지요? 생일을 축하해 주러 오신 분들과 떡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여성재단의 창립 5주년을 축하하는 오색떡케이크가 등장했습니다. 오늘의 커팅식에는 여성재

단 창립 당시 원로분들을 모시고자 했으나, 밝은 미래를 지향하고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라는 의미로, 미래시대의 지평을 열어갈 미래포럼 발기인 분들과, 2005년 사업을 수행해주실 파트너 대표분 세 분께 원로들께서 역할을 양보를 해 주셨습니다. 미래포럼 발기인분들과 아까 전달식에 참석한 파트너기관 대표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BGM 시작)

먼저 촛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박수) (자연스럽게 커팅 진행)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앞에 있는 잔을 모두 채워 주십시오. 강원용 목사님께 건배제의를 부탁드립니다.

(건배제의 축하말)

이것으로 1부 창립기념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도약 2010, 딸들에게 미래를!’ 주고자 새롭게 출범한 한국여성재단과 오늘 새롭게 발족한 미래포럼에 많은 격려와 사랑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식사를 진행하시면서, 잠시 후에 최광기씨를 모시고 2부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부 만찬(19:47~)

(사회:최광기)

(만찬세팅시작)

사회: 떡케이크를 자를 때, 유난히 박수소리가 크시더니 케이크를 자르고 나면 밥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군요. 역시...(웃음)

네! 저는 2부 행사 진행을 맡은 사회자 최광기라고 합니다.

(인사) 잠시 후에 한국여성재단 창립 5주년 기념행사의 2부를 시작할텐데요, 2부 행사 관련하여 잠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순서지 뒷면을 보시면 경매 물품 안내가 있지요? 행사의 즐거움을 더하기 위하여 마련한 경매에 사전에 물품제공을 약속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것이라면 나도 내놓을 수 있다.”하시면, 테이블에 놓여있는 메모지에 적어 주십시오. 저희가 모아서 잠시 후 진행될 경매이벤트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식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전 잠시 후에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중간 경매물품 관련 광고멘트 1~2회 더 진행)

## 릴레이인터뷰(20:20~20:25)

릴레이 인터뷰 대상

국회의원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요,

여기 화면 좀 잡아 주세요.

김부겸 의원님, 손봉숙 의원님, 송영선 의원님, 윤원호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이승희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최순영의원님 감사합니다. => 이사장님께서 내빈소개 때, 소개하셨으면 생략.

1. 손봉숙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 1호로 민주당(정당 국회의원 모두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터 참여) 탄생에 기여
2. 김부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남성의원 대표로, 16대, 17대에 이르러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터로 지속적 기부

### 3. 김길자 : 여성재단 창립 당시 취진위원

## 2부 오프닝과 경매 이벤트(20:25~20:40)

(opening BGM과 함께 MC 등장)

**사회:** 식사들 맛있게 드셨나요?

지금부터 2부 후원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식으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여성재단 창립 5주년 기념행사 2부 진행을 맡은 사회자 최광기입니다. (인사)

아까 식사 하시면서 경매물품들을 많이 들 해주셨는데요, 재미있는 것들도 있고 뜻 깊은 물품들을 내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경매물품 소개)

이 물품들은 앞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한국여성재단의 기금으로 다시 태어나 이 땅의 딸들에게 희망의 기적으로 다시 태어날 텐데요, 이 자리에서

도 몇 가지를 좀 진행해볼까요?

**가증물품 안내**(그림은 소개만)

- 원하는 분들은 안내석에 있는 재단 실무자에게 의사 전달

### 경매물품 순서

1. ESCADA GOLF 상품권 : 박윤정(에스모드 서울 이사장 내정)

- 150만원상당/ 75만원 시작

2. 미세스박테일러 숙녀복 맞춤권(박윤정 이사장 기부) : 박주현(변호사 내정)

- 150만원 상당/ 75만원 시작

\*박윤정: 여성재단 이사

3. CANADA 3주어학연수권(김혜정 한국걸스카우트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기부)

-

4. 무료법률상담권(박주현 변호사 기부)

- 10만원 시작

5. 강지원변호사 캐리커처(상명대 만화학과 학생들 기부)

- 20만원 시작

\* 선물의 의미로 재미있게 마련

\* 캐리커처 재능나눔 해주신 (상명대) 고경일 교수의 한 말씀 요청

\* 캐리커처총5점

강지원 변호사, 김순진 (주)놀부 대표이사,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 박주현 변호사,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 문국현 사장님과 신창재 회장님은 상명대 학생들이 그리고 싶은 기업CEO에 선정되어 캐리커처 마련.

\* 나머지 분들은 미래포럼 초기 발기인 수락자

\* 강지원 변호사 캐리커처만 본인의 수락을 받고 경매에 붙임. 다른 분들은 금일봉을 내고 캐리커처 전달

6. 두 가지 함께 진행

1) 백악관기념가방(김혜정 여성재단 기획홍보위원 기부)

- 5만원 시작

2) SERI뷰티살롱 피부관리권(이훈숙원장)

-10만원 상당/5만원 시작

\*길어질 경우 소개만 하고 회장 입구 안내석에 추후 의사 전달하라고 안내

후원의자리및 축하공연 (20:40~20:52)

1. 화수분 나눔

2. 이소정씨 축하공연 중 화수분에 기부

3. 축하공연 후 화수분 수거

4. 화수분 수거시 모금함(재단 임원들이 올 해 초에 여성재단을 늘 생각하며 용돈을 쪼개 채우려고 가져가신) 수거

**사회:** 이제 행사가 마지막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여성재단 하면 떠오르는 몇가지 이미지들이 있죠. 저기 보이는 저 '딸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슬로건, 아이들이 밝게 웃는 얼굴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이 화수분이라고 불리는 작은 향아리가 떠오릅니다. 꺼내도, 꺼내도 줄어들지 않는 재화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화수분이라고 불리는 요술

항아리인데요, 항상 이 화수분을 채워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한 기적이겠죠.

지금부터 따뜻한 나눔이 희망의 기적으로 바뀌는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화수분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채워주시는 시간인데요. 테이블 앞에 놓여있는 약정서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자리에는 기자분들도 많이 와 계신데요~, 예를 들어 기자분들은 '2005년 여성재단 기사 10번' 이런 것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성재단 임원들께서 올해 초에 모금함을 하나씩 가정으로, 직장으로 가져가셨습니다.

늘 곁에 두시고, 여성재단을 홍보해 주시고, 정성을 모아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화수분 수거할 때 함께 무대 앞으로 가져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소정씨 축하공연)

여러분이 사랑을 나눠주시는 동안, 오늘 한국여성재단 홍보대사로 위촉되신 뮤지컬배우 이소정씨의 아

름다운 노래를 선물하고자 합니다. 이소정씨 노래가 끝나면 각 테이블에서 한 분씩 화수분을 들고 무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소정씨의 축하공연 무대입니다.

이소정씨를 모시겠습니다.

이소정씨 불러주실 노래는 ONE 입니다.

(이소정씨 노래)

폐회(20:52~)

사회: 네! 정말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이소정 홍보대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함께하는 노래였기에 더욱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안내말씀 드렸던 것처럼 각 테이블에서 한 분씩 화수분을 들고 나와 주십시오. 모금함도 함께 수거 합니다.

이제 오늘의 모든 순서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2004년 모두 잘 마무리하시고 다

가오는 새해에 여러분 모두 행복과 희망이 가득 넘  
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딸들의 앞날에도 희망  
의 웃음이 넘쳐나게 될 거라 믿겠습니다.

**‘제도약!2010, 딸들에게 미래를!’**

여러분들의 성원과 정성으로 꼭 이루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여성재단 5주년 창립기념식 및 후원행  
사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 미래포럼 회원명단

| 이름  | 소속      | 직위   | 주소 |
|-----|---------|------|----|
| 강지원 | 법무법인 청지 | 변호사  |    |
| 김순진 | (주)놀부   | 대표이사 |    |
| 남승우 | 풀무원     | 대표   |    |
| 문국현 | 유한킴벌리   | 사장   |    |
| 박주현 |         | 변호사  |    |
| 서경배 | 태평양     | 사장   |    |
| 안철수 | 안철수연구소  | 사장   |    |
| 오세훈 |         | 변호사  |    |
| 이길여 | 가천길재단   | 회장   |    |
| 이재웅 | 다음      | 대표   |    |
| 장홍순 | (주)터보테크 | 대표이사 |    |
| 정광모 | 한국소비자연맹 | 회장   |    |
| 김미화 |         | 방충인  |    |

## [여성국회의원 명단]

| 이름  | 소속     | 주 소                              |
|-----|--------|----------------------------------|
| 강혜숙 | 열린우리당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1번지 국회의원회관 309호 |
| 고경화 | 한나라당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1번지 국회의원회관 437호 |
| 김명자 | 열린우리당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1번지 국회의원회관 528호 |
| 김선미 | 열린우리당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1번지 국회의원회관 745호 |
| 김애실 | 한나라당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1번지 국회의원회관 632호 |
| 김영선 | 한나라당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1번지 국회의원회관 425호 |
| 김영숙 | 한나라당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1번지 국회의원회관 740호 |
| 김영주 | 열린우리당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1번지 국회의원회관 736호 |
| 김현미 | 열린우리당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1번지 국회의원회관 742호 |
| 김희선 | 열린우리당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1번지 국회의원회관 503호 |
| 김희정 | 한나라당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1번지 국회의원회관 635호 |
| 나성원 | 한나라당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1번지 국회의원회관 515호 |
| 박근혜 | 한나라당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1번지 국회의원회관 545호 |
| 박순자 | 한나라당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1번지 국회의원회관 532호 |
| 박영선 | 열린우리당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1번지 국회의원회관 504호 |
| 박찬숙 | 한나라당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1번지 국회의원회관 825호 |
| 손봉숙 | 새천년민주당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1번지 국회의원회관 844호 |
| 송영선 | 한나라당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1번지 국회의원회관 711호 |
| 심상정 | 민주노동당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1번지 국회의원회관 713호 |

|     |        |     |      |      |        |        |       |
|-----|--------|-----|------|------|--------|--------|-------|
| 인명옥 | 한나라당   | 서울시 | 영등포구 | 여의도동 | 여의도1번지 | 국회의원회관 | 234호  |
| 유승희 | 열린우리당  | 서울시 | 영등포구 | 여의도동 | 여의도1번지 | 국회의원회관 | 501호  |
| 윤원호 | 열린우리당  | 서울시 | 영등포구 | 여의도동 | 여의도1번지 | 국회의원회관 | 525호  |
| 이경숙 | 열린우리당  | 서울시 | 영등포구 | 여의도동 | 여의도1번지 | 국회의원회관 | 336호  |
| 이계경 | 한나라당   | 서울시 | 영등포구 | 여의도동 | 여의도1번지 | 국회의원회관 | 637호  |
| 이미경 | 열린우리당  | 서울시 | 영등포구 | 여의도동 | 여의도1번지 | 국회의원회관 | 630호  |
| 이승희 | 새천년민주당 | 서울시 | 영등포구 | 여의도동 | 여의도1번지 | 국회의원회관 | 714호  |
| 이영순 | 민주노동당  | 서울시 | 영등포구 | 여의도동 | 여의도1번지 | 국회의원회관 | 801호  |
| 이은영 | 열린우리당  | 서울시 | 영등포구 | 여의도동 | 여의도1번지 | 국회의원회관 | 229호  |
| 이혜훈 | 한나라당   | 서울시 | 영등포구 | 여의도동 | 여의도1번지 | 국회의원회관 | 303호  |
| 장복신 | 열린우리당  | 서울시 | 영등포구 | 여의도동 | 여의도1번지 | 국회의원회관 | 215호  |
| 장향숙 | 열린우리당  | 서울시 | 영등포구 | 여의도동 | 여의도1번지 | 국회의원회관 | 221호? |
| 전여옥 | 한나라당   | 서울시 | 영등포구 | 여의도동 | 여의도1번지 | 국회의원회관 | 814호  |
| 전재희 | 한나라당   | 서울시 | 영등포구 | 여의도동 | 여의도1번지 | 국회의원회관 | 339호  |
| 조배숙 | 열린우리당  | 서울시 | 영등포구 | 여의도동 | 여의도1번지 | 국회의원회관 | 628호  |
| 진수희 | 한나라당   | 서울시 | 영등포구 | 여의도동 | 여의도1번지 | 국회의원회관 | 332호  |
| 최순영 | 민주노동당  | 서울시 | 영등포구 | 여의도동 | 여의도1번지 | 국회의원회관 | 228호  |
| 한명숙 | 열린우리당  | 서울시 | 영등포구 | 여의도동 | 여의도1번지 | 국회의원회관 | 721호  |
| 현애자 | 민주노동당  | 서울시 | 영등포구 | 여의도동 | 여의도1번지 | 국회의원회관 | 802호  |
| 홍미영 | 열린우리당  | 서울시 | 영등포구 | 여의도동 | 여의도1번지 | 국회의원회관 | 737호  |

## 이사장님 인사말씀

지난 5년간의 재단 활동을 보고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늘 부족하다 느끼며,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기도하면서 보내 왔는데, 이제 돌이켜 보니 그래도 참 많은 일을 했구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앞에 감히 이렇게 말씀 올려도 되나 싶지만,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하는 부끄러운 자화자찬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5년간의 여성재단이 걸어온 길을 세세히 설명 드리고 싶으나 조금 전에 보신 홍보영상물과 재단 5년의 연차보고서로 대체하고, 재단의 지원사업과, 새롭게 거듭나고자 하는 여성재단 미래비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 지원단체명단 PPT 시작)

처음 1999년 12월 6일 창립 당시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의 많은 관심에 힘입어 1천억 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부끄럽게도 지난 5년간 저희는 약 78억 정도의 기금을 모았고, 약 22만여 명의 기부자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 78억이란 기금규모는 우리사회가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여성'을 내걸고 모금을 한 지난 5년은 무척 고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한국여성재단 추진위원회 창립당시 멤버였던 강원용 목사와 김길자 선생님이 와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추후 재확인)

한국여성기금 추진위원회의 첫 결의대로 기부자분들의 소중한 정성을 고스란히 보관하며, 그 이자수익을 가지고 2000년부터 매 해 정기신청공모사업을 통해 여성들에게 지원을 해왔습니다. 2005년까지 총 지원사업수는 214개에 이르며, 지원금은 약 17억원에 이릅니다. 여기에는 장학금 등 지정기탁을 통해 지원한 사업과 지원금, 그리고 2004년에 직접사업으로 모금사업을 벌인 맑은정치여성기금과 새날기금 지원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명단은 그동안 우리 여성재단과 파트너십을 이루고 사업을 수행한 단체들입니다. 이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성재단에서 비록 충분히 많은 사업비를 드리지 못했어도,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기획해서 자신들의 몸은 잘 돌보지도 못하면서 일선에서 많은 일을 해내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들이야말로 여성재단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몇 개 단체에서 참여해 주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박수...) 이 분들의 보람이 바로 여성재단의 보람이자 성과입니다. 앞으로 여성재단이 좀 더 고군분투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화면에 미래비전 PPT 시작)

한국여성재단은 '딸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사명을 갖고 1999년 여성을 위한 시민사회공익재단으로 처음 출범을 해서 지난 5년간 여성들의 현실을 알리고, 여성 스스로를 돕고 자하는데 총역량을 투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소외를 걷어내는데 작은 일조를 해왔습니다. 이제 탄생 5주년을 맞은 여성재단은 새로운 비전선포를 통해 여성들을 위한 한 단계 성숙한 활동을 벌여나가하고자 합니다.

## 한국여성재단 미래비전

### ‘제도약! 2010, 딸들에게 미래를!’

#### ‘딸들의 희망인 한국여성재단은

사각지대 소외여성들을 위한 복지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비정규직 70%가 여성이고, 여성노인 10명 중 1명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분류되며, 여성 장애인 1/3이 전혀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10가정 중 3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20대 여성 5명 중 1명이 성매매 피해경험이 있는 것이 우리 여성들의 현실입니다. 지원의 사각지대에 처한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 ‘여성의 미래인 한국여성재단은

여성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여성은 유용한 자원만이 아니라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가치입니다. 여성인재육성을 통해 우리 여성들에게 새처럼 훨훨 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고,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여성들이 이끌어가는 살맛나는 세상, 양성 평등한 새 날을 준비해나가겠습니다.

#### ‘우리의 미래인 한국여성재단은

글로벌여성리더십을 함양하겠습니다.’

21C 글로벌 시대는 국가와 기업, 사회공익기관의 협력 하에 나눔과 평등과 상생의 가치를 구현할 것을 요청합니다. 세계적 안목으로 한국사회의 균형적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여성리더십함양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지난 5년간 여성들의 현실을 알리고, 스스로를 돕고자하는데 총력을 투입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여성들이 급변하는 사회를 추동해가는 실질적 주체로의 지위 확보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잠재역량을 맘껏 꽃피우고, 도약할 수 있도록 우정 깊은 친구가 되어 2010년까지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이 제도약하고자하는 역사적 순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